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Analysis of Women's selection Pattern on Kindergarten/ Child Care Centers and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이경선*, 김주후**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Gyeong-Seon Lee(sunlee31@tu.ac.kr)*, Juhu Kim(juhu@ajo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자료(KLoWF) 중에서, 만2세 이상 만6세 이하의 유아를 두고 있는 여성 1,8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아대상 교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유치원, 보육시설, 사교육)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관에 유아를 보내는 여성의 특성에 따른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유아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의 중복선택은, 만6세에서 유치원과 사교육 함께 이용하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과 유치원, 보육시설을 병행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사교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유치원과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일자리유무와 일자리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가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여성가족패널 | 유치원 | 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 | 여성의 교육기관 중복선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omen's selection pattern on kindergarten/child care centers and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1,810 women whose young children's age was between 2 and 6 were selected from KLoWF data. After categorizing the education centers as daycare center, kindergarten, and private institute, it was investigated the women's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decision making for selection of the centers.

The results of survey data analyses showed that younger children's mothers preferred to send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s, older children's mothers did to kindergarten. In terms of their dual selection on education centers, the frequency of 6-old-year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 and private institutes was very high. As the children's age was increasing, the frequency of women's multiple selection on daycare center, kindergarten and private institute was also increasing.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women's job pattern and existence, they preferred to send children to daycare centers. With these finding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 keyword : | Survey of Women and Family | Kindergarten, Child Care Center & Private Tutoring | Women's Dual Selection on Education Centers |

1. 서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5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이 2004년 1월 통과된 이후,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1-3].

현재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크게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기관들은 행정관할기구, 적용되는 법률, 운영관리, 기관의 종류 등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교육목적, 교육방법, 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설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으로 미술, 음악, 무용, 영어, 태권도, 웅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학원의 종류는 많다. 또한 유치원은 만3-5세를 대상으로, 보육시설기관은 0세-5세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령에 따라 교육목적 및 교육방법에서 차이가 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경우 특정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보육시설 및 학원 선택에 관한 연구를 보면[4-7],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주요 결정자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근거로, 어머니는 유치원과 학원, 또는 학원과 보육시설을 유사한 성격의 기관으로 이해함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교육기관별 유아의 이용률을 살펴보면(한국교육개발원, 2005)[8], 보육시설 27.9%, 유치원 16.5%, 선교회 1.9%, 학원 16.9%(반일제이상 학원 8.2%, 일반학원 8.7%)로 유치원과 학원의 이용률이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영어학원에서 개설한 영어유치원이나 유아미술학원 등이 유아교육기관과 비슷한 교육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의 목적을 상당부분 초등학교 준비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이 원아모집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어, 미술 등의 특별활동을 많이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모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원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9][10].

둘째,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분석한 연구[11][12]에 의하면, 많은 부모들이 기관의 질과 관련된 항목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정보 부족 등으로 교육기관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그 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나 이웃 등 비전문가로부터 얻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은숙, 2001)[13].

마지막으로, 부모는 질 높은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싶으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저소득층 흑인부모를 대상으로 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보육비용 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14], 부모가 낮은 질의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이유가 보육의 질을 잘 모르거나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는 질 높은 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보육료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경우 교육목적,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 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부모관련 환경변인에 의해 유아교육기관이 선택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원

선택에 관한 설명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부모들은 설립의 목적이나 운영방향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교육기관에 중복적으로 유아를 등록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9]의 조사에 의하면, 유아일반학원 이용자의 42.8%는 유치원, 42.5%는 보육시설과 병행이용하고 있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과 병행하는 경우도 7.6%로 나타나, 많은 유아들이 2개 이상의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기관경험에 대한 나정·문무경(2001)[15]의 조사에서도 유치원과 학원에 동시에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부모선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각 기관별 요구분석과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조사연구에 집중되어 왔다[16][17].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보육시설[18-20], 유치원[21], 보육시설과 유치원[11][13], 혹은 유치원과 학원[5] 등의 범주에서 부모의 선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6],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22],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23][24],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25] 등에 한정되어 있어, 부모들의 사교육 선택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과 부모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취업유무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으며,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박미희, 여정성(1996)[26]은 취업모 가구가 더 많은 지출을 한다고 분석한 반면, 정영숙(1996)[27]은 취업모보다 전업주부의 가계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이주(2007)[28]는 대체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어머니의 직업이 판매 및 서비스직일 경우에는 전업주부보다 더 적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유무뿐 아니라 직업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 한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유치원·보육시

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각 기관별로 따로 수행되었거나, 두 기관에 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을 모두 포함한 연구[1][7]가 일부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의 질이 미비한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선택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사교육, 혹은 유치원과 사교육 등 기관의 중복선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시설설비, 교사 등 교육기관관련 변인에 치우쳐 있고 부모배경에 따른 선택은 후속연구나 심화된 연구로 제한하고 있을 뿐 실제 연구는 많지 않다[29].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지원 정책은 자녀 연령별, 가계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부분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지원대상자와 시설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령과 여성의 특성에 따른 유치원, 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자료는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련화된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기관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만2세에서 만6세 이하의 유아를 두고 있는 여성의 교육기관 선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유치원, 보육시설, 사교육(학원 및 개인교습 포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2개 이상의 교육유형을 선택하는 즉, 중복선택의 실태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배경변인, 취업유형이 다양한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로 표집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표집의 문제점을 가졌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동안의 연구에서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았던 여성의 배경변인 분석을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은 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여성의 취업유무 및 유형과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국 9,000가구 내 만19세-64세 여성 10,000명을 표본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 가족과정,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 1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유아대상 교육기관선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2세 이상 만6세 이하의 유아를 두고 있는 여성 1,8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아대상 교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유치원,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포함), 사교육)로 구분하고 여성의 특성과 각 교육기관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교육은 학원을 보내는 경우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교육(방문교사 등)을 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사교육의 경우 사교육만 하는 경우, 유치원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기관에도 보내지 않는

경우와 다섯 가지 교육유형(유치원만, 보육시설만, 사교육만, 유치원+사교육, 보육시설+사교육)을 합쳐 모두 여섯 가지 유형을 고려하였다.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가족패널에서 조사한 여성의 배경 변인들(예: 유아의 연령, 소득수준,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유형을 고려하였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유아 및 여성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일자리 유형

일자리 유형은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임금근로자, 개인사업, 프리랜서, 식당 등의 자영업 혹은 농림수산업 등인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예, 보험모집인,

표 1. 연구대상

| 변인 | | n (%) |
|------------|-----------|-------------|
| 유아 연령 | 만 2세 | 304(16.8) |
| | 만 3세 | 356(19.7) |
| | 만 4세 | 367(20.3) |
| | 만 5세 | 386(21.3) |
| | 만 6세 | 397(21.9) |
| | 전체 | 1,810(100) |
| 유아 성별 | 남아 | 961(53.1) |
| | 여아 | 849(46.9) |
| | 전체 | 1,810(100) |
| 여성 연령 | 29이하 | 136(7.5) |
| | 30-34 | 605(33.4) |
| | 35-39 | 756(41.8) |
| | 40이상 | 313(17.3) |
| | 전체 | 1,810(100) |
| 여성의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119(6.6) |
| | 고졸 | 791(43.7) |
| | 2/3년제 | 388(21.4) |
| | 4년제 졸업 이상 | 512(28.3) |
| | 전체 | 1,810(100) |
| 가구 소득 (만원) | 100미만 | 41(2.4) |
| | 100-200 | 285(16.6) |
| | 200-300 | 593(34.6) |
| | 300-400 | 414(24.1) |
| | 400-500 | 181(10.6) |
| | 500이상 | 201(11.7) |
| | 전체 | 1,715(100) |
| 일자리 형태 | 임금노동자 | 281(15.5) |
| | 비임금노동자 | 144(8.0) |
| | 특수고용직 | 14(0.5) |
| | 무직 | 1,371(75.7) |
| | 전체 | 1,810(100) |

레미콘 및 화물지입차량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응답자의 배경변인(예: 유아의 연령, 여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대상 교육기관선택 유형과 여성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은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 유형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만6세 이하 미취학 유아가 있는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대상 여성의 23.5%가 어떠한 기관에도 유아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유아대상 기관을 한 군데라도 보내는 경우, 보육시설(34.0%)에 보내는 여성이 가장 많았고, 유치원(26.7%)이 그 뒤를 이었다. 유치원과 사교육,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동시에 보내는 경우

도 각각 6.4%와 3.7%로 보고되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에만 유아를 보내는 경우도 5.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의 연령별로 교육기관 선택 유형의 특징을 보면 만2, 3, 4세는 보육시설만 보내는 빈도가 높고 만5세 이상은 유치원만 보내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만6세에서 가장 높은(14.9%) 반면,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만6세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4.5%)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 유형은 여성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먼저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을 응답자의 가구소득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67.4$, $p < .01$). 가구소득 집단별로 교육기관선택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떠한 기관에도 보내지 않는 비율이 27%이었고 교육기관에 유아를 보내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48.9%) 나타났다. 소득이 200-300만원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율은 75.9%로 200만원이하 집단 보다 약간 높은데 여전히 유치원(23.4%) 보다는 보육시설에만 보내는 비율(37.4%)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교육기관선택 유형

n(%)

| 선택 유형 유아연령 | 아무곳 안보낸 | 유치원만 | 보육시설만 | 사교육만 | 유치원 +사교육 | 보육시설+사 교육 | Total |
|---------------|------------|-----------|-----------|----------|-------------|--------------|-----------|
| 만 2세 | 208(68.4) | 7(2.3) | 68(22.4) | 19(6.3) | - | 2(0.6) | 304(100) |
| 만 3세 | 126(35.4) | 32(9.0) | 158(44.4) | 22(6.2) | 6(1.7) | 12(3.4) | 356(100) |
| 만 4세 | 48(13.1) | 110(30.0) | 160(43.6) | 14(3.8) | 16(4.4) | 19(5.2) | 367(100) |
| 만 5세 | 23(6.0) | 160(41.5) | 138(35.8) | 14(3.6) | 35(9.1) | 16(4.1) | 386(100) |
| 만 6세 | 21(5.3) | 174(43.8) | 92(23.2) | 33(8.3) | 59(14.9) | 18(4.5) | 397(100) |
| 전체 | 426(23.5) | 483(26.7) | 616(34.0) | 102(5.6) | 116(6.4) | 67(3.7) | 1810(100) |

표 3.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관선택 유형

n(%)

| 선택 유형 소득(만원) | 아무곳 안보낸 | 유치원만 | 보육시설만 | 사교육만 | 유치원 +사교육 | 보육시설+사 교육 | Total | χ^2 |
|-----------------|------------|-----------|-----------|----------|-------------|--------------|-----------|-------------------|
| 200 미만 | 88(27.0) | 57(17.5) | 143(43.9) | 14(4.3) | 7(2.1) | 17(5.2) | 326(100) | 67.4** (p<.01) |
| 200-300 | 143(24.1) | 139(23.4) | 222(37.4) | 32(5.4) | 34(5.7) | 23(3.9) | 593(100) | |
| 300-400 | 86(20.8) | 126(30.4) | 122(29.5) | 27(6.5) | 37(8.9) | 16(3.9) | 414(100) | |
| 400 이상 | 79(20.7) | 132(34.6) | 105(27.5) | 27(7.1) | 29(7.6) | 10(2.6) | 181(100) | |
| 전체 | 396(23.1) | 454(26.5) | 592(34.5) | 100(5.8) | 107(6.2) | 66(3.8) | 1715(100) | |

300-4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선택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낮은 소득집단에 비해 유치원만 보내는 비율이 높고 유치원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교육기관선택 유형과의 관련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 = 34.6, p < .01$) ([표 4] 참조). 교육수준별로 교육기관선택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경우 어떠한 기관에도 보내지 않는 비율이 24.5%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만 선택한 경우는 각각 25.0%와 37.8로 보육시설만 보내는 비율이 더 높았다. 2/3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 보육시설만 보내는 비율(28.5%)은 낮게 나타났으나 유치원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비율(10.1%)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졸 이상의 경우 교육기관선택 비율은 79.5%로 약간 높고 유치원만 보내는 비율(30.3%)이 고졸이나

2/3년제 졸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과 교육기관선택 유형과의 관련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48.0, p < .01$) ([표 5] 참조). 연령에 따른 교육기관선택의 특징을 보면 20대의 경우가 30대 여성에 비해 아무런 기관에도 보내지 않는 비율(35.3%)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35-39세'와 '40세 이상'은 유치원만 보내는 비율이 각각 29.9%와 30.7%로 35세 미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30.0%와 37.7%로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35-39세' 집단에서 각각 8.2%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여성의 취업유무 및 유형과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여성의 일자리 유형과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선택유형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현재 노동

표 4.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기관선택 유형

n(%)

| 교육수준 \ 선택 유형 | 아무곳 안보냄 | 유치원만 | 보육시설만 | 사교육만 | 유치원+사교육 | 보육시설+사교육 | Total | χ^2 |
|--------------|-----------|-----------|-----------|----------|----------|----------|-----------|-------------------|
| 고졸이하 | 223(24.5) | 228(25.1) | 344(37.8) | 39(4.3) | 40(4.4) | 36(4.0) | 791(100) | 34.6** (p<.01) |
| 2/3년제 | 93(24.0) | 100(25.8) | 111(28.6) | 29(7.5) | 39(10.1) | 16(4.1) | 388(100) | |
| 4년제졸 이상 | 110(21.5) | 155(30.3) | 161(31.4) | 34(6.6) | 37(7.2) | 15(2.9) | 512(100) | |
| 전체 | 426(23.5) | 483(26.7) | 616(34.0) | 102(5.6) | 116(6.4) | 67(3.7) | 1810(100) | |

표 5. 여성의 연령에 따른 교육기관선택 유형

n(%)

| 여성연령 \ 선택 유형 | 아무곳 안보냄 | 유치원만 | 보육시설만 | 사교육만 | 유치원+사교육 | 보육시설+사교육 | Total | χ^2 |
|--------------|-----------|-----------|-----------|----------|----------|----------|-----------|-------------------|
| 29세 이하 | 48(35.3) | 22(16.2) | 52(38.2) | 5(3.7) | 5(3.7) | 4(2.9) | 136(100) | 48.0** (p<.01) |
| 30-34세 | 156(25.8) | 139(23.0) | 219(36.2) | 38(6.3) | 31(5.1) | 22(3.6) | 605(100) | |
| 35-39세 | 159(21.0) | 226(29.9) | 227(30.0) | 46(6.1) | 62(8.2) | 36(4.8) | 756(100) | |
| 40세 이상 | 63(20.1) | 96(30.7) | 118(37.7) | 13(4.2) | 18(5.8) | 5(1.6) | 313(100) | |
| 전체 | 426(23.5) | 483(26.7) | 616(34.0) | 102(5.6) | 116(6.4) | 67(3.7) | 1810(100) | |

표 6. 여성의 일자리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선택 유형

n(%)

| 일자리유형 \ 선택 유형 | 아무곳도 안보냄 | 유치원만 | 보육시설만 | 사교육만 | 유치원+사교육 | 보육시설+사교육 | Total |
|---------------|-----------|-----------|-----------|----------|----------|----------|------------|
| 임금노동자 | 34(12.1) | 78(27.8) | 131(46.6) | 10(3.6) | 17(6.0) | 11(3.9) | 281(100) |
| 비임금노동자 | 21(14.6) | 42(29.2) | 56(38.9) | 11(7.6) | 9(6.3) | 5(3.5) | 144(100) |
| 특수고용직 | 2(14.3) | 2(14.3) | 6(42.9) | 2(14.3) | 1(7.1) | 1(7.1) | 14(100) |
| 일자리없음 | 369(26.9) | 361(26.3) | 423(30.9) | 79(5.8) | 89(6.5) | 50(3.6) | 1,371(100) |
| 전체 | 426(23.5) | 483(26.7) | 616(34.0) | 102(5.6) | 116(6.4) | 67(3.7) | 1,810(100) |

을 하는 경우보다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이용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즉, 일을 하게 되면 유치원·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금노동자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만 보내는 경우는 비임금 노동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유무와 일자리유형에 상관없이 보육시설만을 이용하는 비율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활용하는 비율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큰 차이가 없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연령에 따른 교육기관선택의 경향을 살펴보면, 아무 곳에도 보내지 않는 비율이 23.5%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2, 3세 유아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유아교육기관의 적정 입학연령을 만4세로 보는 경향[1]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보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높은 데 반해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연령이 높은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영아보육시설기관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30][31]. 그러므로 영아보육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어린 경우 보육시설을 더 선호하고, 취학연령이 가까워지면 유치원을 더 선호한다는 일련의 연구[7][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의 중복선택은 '만6세 유치원+사교육'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여성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치원을 선택하는 여성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여성보다 준비교육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할 때 이러한 부모의 요구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교육과 유치원, 보육시설을 병행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사교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유치원과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의 약 93~95%가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다는 박수진(2001)[32]과 우남희·현은자·이종희(1993)[3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표집대상의 지역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수진(2001)과 우남희 외(1993)의 연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사교육은 역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의미하며, 지역에 따른 교육의 차이는 유아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와 그 외 지역주민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간 위화감 조성으로 대도시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지역편중에 따른 사교육의 편차를 주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유형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나, 4년제졸 이상의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기관 이용률은 증가하나, 40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여성들의 사교육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과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사교육의존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주관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입장도 다른 계층에 비해 뚜렷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소득수준과 교육기관 이용률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높고, 사교육과

병행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기관에만 유아를 보내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사교육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유치원의 이용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7]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를 지지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2],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으로 나타났고, 선택의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기관선택의 차이가 나타남은 교육의 불평등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일자리 유무, 일자리 유형과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면, 일자리유무와 일자리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아무 곳에도 안보내는 비율(26.9%)이 유치원에만 보내는 비율(26.7%)이나 보육시설에만 보내는 비율(30.9%)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됨을 말해 준다. 더불어 여성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아대상 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지원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0-5세 유아의 약 10% 수준이다[34]. 그러므로 앞으로도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에서 조사된 변인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유아대상 교육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상기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대상 교육기관에 보내는 적정연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유아중심 기관만이 아니라 더 어린 영아대

상 기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과 지속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영아대상 보육기관의 수요와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른 유아대상 교육선택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교육유형을 선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유무만을 조사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분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학력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유아대상 교육·보육 및 사교육선택이 여성의 선호도나 지역간 차이 정도인지 아니면 각 교육기관의 질이나 교육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따라 선택의 유형이 바뀌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박경애,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 양윤주,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태도 및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3] 최보애,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 아동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5] 최경미, *유아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김지경,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15권, 제3호, pp.67-86, 2004.
- [7] 김지경,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8호, pp.65-76, 2004b.
- [8]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 조사 3: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3: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 [10] 이영석, 영유아기 조기교육의 실태,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아동학회, 2002.
- [11] 서형미, 유아교육기관선택시 고려요인과 선택과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2] 이해정, 한국유치원교육의 이해, 교육문화사, 2002.
- [13] 김은숙,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4] A. Shlay, H. Tran, M. Weinrub, and M. Harmon, "Teasing apart the Child Care Conundrum: A Factorial Survey Analysis of Perceptions of Child Care Quality, Fair Market Price and Willingness to Pay by Low-income African American Par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20, pp.393-416, 2005.
- [15] 나정, 문무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과 요구분석", *교육학연구*, 제39권, 제4호, pp.255-270, 2001.
- [16] P. Long, P. Wilson, P. Kutnick, and L. Telford, "Choice and Child Care: A Survey of Parental Perceptions and View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19, pp.51-63, 1996.
- [17] 최영훈,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8] M. Early and R. Burchinal,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6, pp.475-497, 2001.
- [19] V. Peyton, A. Jacobs, M. O'Brien, and C. Roy,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16, pp.91-208, 2001.
- [20] 임유경, 영유아 보육시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1] 최인선,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2]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5-24, 2005.
- [23] 김영명, 서영숙,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 문화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15-136, 2006.
- [24] 홍순옥, 허명순,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6호, pp.215-236, 2007.
- [25] 이정란,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6] 박미희, 여정성,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2호, pp.189-206, 2000.
- [27] 정영숙,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한국소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pp.66-85, 1997.
- [28] 강이주,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2호, pp.315-331, 2007.
- [29] 홍순옥, 최정희, "어머니 배경변인에 따른 유치원 선택요인", *아동학회지*, 제28권, 제4호, pp.51-71, 2007.
- [30] 김승권,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3, 2006.
- [31] 김지경,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6호, pp.47-60, 2005.
- [32] 박수진,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

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3]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사설학원과 가정중심의 조기교육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3권, pp.49-64, 1993.

[34] 백선희, 조성우,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 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1권, 6호, pp.429-455, 2005.

저 자 소 개

이 경 선(Gyeong-Seon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아동학 박사)
 - 현재 :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유아교육기관의 질

김 주 후(Juhu Kim)

정회원



- 1999년 8월 :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교육학과(철학박사)
 - 현재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부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평가